

正祖 親撰 『八家手圈』의 編纂에 관한 小考

尹炫晶*

- | | |
|--------------------|------------------|
| I. 서론 | IV. 『八家手圈』의 구성 |
| II. 정조의 抄本과 選本 | V. 『八家手圈』의 節錄 분석 |
| III. 『八家手圈』 編纂의 과정 | VI. 결론 |

• 국문초록

『八家手圈』은 茅坤의 『唐宋八大家文鈔』를 底本으로 하여 正祖가 직접 節錄한 구절들을 문인별로 분류하여 엮은 문헌으로, 정조의 親撰 抄本 『四部手圈』중 하나이다. 본고는 정조가 이전에 같은 저본을 대상으로 選本 『八子百選』을 편찬하고서 재차 초본을 편찬하였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두 문헌을 비교하고, 『팔가수권』의 節錄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통해 그 편찬 의도를 추측하였고,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팔가수권』은 독자를 의식하지 않고 정조 본인이 중요한 구절을 완전히 외워 체득하는 암송공부를 위해 편찬한 문헌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근거로는 첫째, 정조의 선본과 초본은 초록과 암송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 둘째, 정조는 『팔가수권』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권점을 치는 행위 자체를 朱子를 계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초록한 구절에 대한 논평은 일체 생략하였다. 셋째, 『팔가수권』은 문체와 문인, 작품명 등의 정보보다 초록된 구절을 강조하고, 작품명 중 인명이나 직위명, 지명 등에 해당하는 글자는 생략하였으며, 목차 없는 구성으로 편찬되었다. 이러한 구성상의 특징은 『팔자백선』과 상반되는 부분으로, 정조가 이 문헌을 편찬할 때에 독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節錄 양상에 있어 정조 특유의 과감한 節錄 방식은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팔가수권』이 지닌 학습서로서의 완성도를 낮추고 있으며, 반면 排比句의 선호는 이 문헌의 편찬 목적이 암송용 도구라는 점을 추측케 한다. 절록 내용 분석 결과로는, 정조가 이상향으로 여긴 시대와 인물들의 고사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구절과 治世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을 다수 수록하고 있었다. 이는 임금인 정조 본인에게 유용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신하 입장의 문인들이 읽었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주로 선별한 『팔자백선』과 반대의 면모에 해당한다.

이처럼 『팔가수권』은 그 편찬 의도가 『팔자백선』과 다르며, 단순히 저본이 동일하다는 사실로 인해 이 두 문헌을 같은 선상에 두고 논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조의 선본과 초본이 차이를 지닌다는 점을 규명하고 문헌 내적 분석을 통해 그 편찬 의도를 추측한 것에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주제어 : 『八家手圈』, 正祖, 『四部手圈』, 抄本, 御撰書, 唐宋八大家

I. 서론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군주 正祖가 다수의 문헌을 편찬한 것은 종래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바이다. 특히 孔子의 ‘博文約禮’ 정신을 강조하면서 요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인 抄錄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정조 친찬 문헌 중 選本이 일종의 연속간행물로서 편찬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八家手圈』 역시 그 흐름의 일부로서 편찬된 문헌으로, 『四部手圈』중 『唐宋八大家文鈔』를 저본으로 한 集部 抄本에 해당한다.

『팔가수권』에 대한 既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관련 연구로는 단행본 『정조의 시문집 편찬』에 실린 「唐宋八家文 선집 八子百選과 八家手圈」 논고²⁾와 왕결청이 선본으로서 『팔가수권』의 특징을 정리하고 한유문의 수용 양상에 대해 고찰한 논고,³⁾ 오수형이 정조의 韓愈와 柳宗元 그리고 蘇軾 산문 수용 양상을 『팔가수권』을 통해 분석한 논고,⁴⁾ 『八子百選』과 『팔가수권』에 수록된 記文을 분석하여 정조의 인간적 면모를 규명한 민선영의 논고⁵⁾가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사부수권』의 일부로서 『팔가수권』을 언급하고 있는 종류의 연구로 2002년 규장각에서 영인한 『사부수권』의 해제⁶⁾와 『사부수권』의 편찬과 의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핀 조동영의 논고,⁷⁾ 『사부수권』의 편찬과 교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강순애의 논고⁸⁾가 있다.

- 1) 윤현정, 「朝鮮朝 正祖 御撰 選本の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의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9.
- 2) 강혜선, 『정조의 시문집 편찬』, 문헌과 해석사, 2000.
- 3) 왕결청, 「『八家手圈』에 보이는 選本上의 특징과 韓愈文의 수용 양상」, 『열상고전연구』 53, 열상고전연구회, 2016.
- 4) 오수형, 「正祖의 韓愈文 수용 양상」, 『중국문학』 70, 한국중국어문학회, 2012.
 ———, 「正祖의 蘇軾 散文 수용 양상 연구」, 『중국문학』 77, 한국중국어문학회, 2013.
 ———, 「『八家手圈』에 나타난 正祖의 柳宗元 산문 수용 양상」, 『중국어문학지』 49, 중국어문학회, 2014.
- 5) 민선영, 「마음의 휴식을 위한 공부-『八子百選』과 『八家手圈』의 記를 중심으로」, 『한국산문연구집간』 3, 한국중국산문학회, 2013.
- 6) 『四部手圈』, 서울대학교규장각, 2002.
- 7) 조동영, 「正祖의 『四部手圈』 小考」,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 8) 강순애,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四部手圈』 편찬·교정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서지학연구』 78, 한국서지학회, 2019.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사부수권』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조사를 개괄적으로 진행하면서 『팔가수권』을 언급하거나 당송팔대가 산문 수용 양상의 사례로써 『팔가수권』을 제시한 것으로, 정조가 선본 『팔자백선』과 초본 『팔가수권』을 각각 편찬한 의도와 두 문헌 간 구성상의 차이를 검토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팔가수권』은 글을 선별하되 節錄하지 않고 온전히 수록하는 선본의 형식을 가진 『팔자백선』과 달리 일부 문장이나 구절만을 수록하여 극히 축약된 형식을 가진 초본이며, 두 문헌의 실제 수록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약간의出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팔가수권』과 『팔자백선』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팔가수권』의 편찬 의도와 초본으로서의 특징에 대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정조의 抄本과 選本

抄本이란 ‘「명사」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적음. 또는 그런 기록 = 抄錄’의 뜻을 가진 ‘抄’와 ‘「접사」(일부 명사 뒤에 붙어) 책 또는 판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의 뜻을 가진 ‘本’을 합쳐 ‘「명사」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낀 책이나 문서’라 정의할 수 있다.⁹⁾ 즉, 초본은 하나의 작품 중에 특정 구절만을 節錄하여 모아 엮은 종류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큰 범주에서는 선본에 포함되어, 실제로도 초본과 선본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選本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①「명사」시험이나 심사에 든 사람을 뽑는 일. ②「의존명사」여럿 가운데 뽑힌 횟수나 차례를 세는 단위.’의 뜻을 가진 ‘選’과 ‘「접사」(일부 명사 뒤에 붙어) 책 또는 판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의 뜻을 가진 ‘本’을 합쳐 소위 ‘가려 뽑은 책’이라 말할 수 있다. 수많은 글, 물건,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린다는 의미의 ‘選’은 특히 글을 가려 뽑는다는 의미로 흔히 쓰여 ‘「접사」(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을 가려 뽑아 모은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기도 한다.¹⁰⁾

9)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10)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정조는 抄錄을 훌륭한 학문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생각은 공자의 ‘博文約禮’를 본받아 많은 양의 문헌을 두루 섭렵하고 핵심이 되는 요체를 체득하여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이 참된 학문이라고 여긴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¹¹⁾ 실제로 그는 여러 문신들과 유생들에게 다양한 견해를 물은 뒤 그 문답의 내용을 기록하여 자신의 초록 작업에 객관성과 학문적 완성도를 높였다. 그 결과가 집약된 것이 곧 선본이라는 형태의 문헌인데, 선본은 정조의 御定書와 命撰書에 대한 해제집인 『군서표기』 수록 문헌 중 5분의 1에 육박하여,¹²⁾ 정조조 편찬 문헌의 특징으로도 꼽힌다.¹³⁾ 그 중 중요한 부분 전체를 수록하되 본래의 뜻을 해칠 수도 있는 번잡한 주석을 제거한 종류의 문헌이 바로 ‘白文 選本’으로, 당송팔대가의 문장과 주자의 문장, 사마천의 『사기』, 육선공의 주의문, 유가의 기본 경학서인 오경, 두보와 육유의 시 등을 대상으로 모범이 되는 글을 선별하여 교육의 목적을 지니고 연속적으로 간행된 6종의 정조 親撰 선본이 그 대표적 예이다.¹⁴⁾

한편, 여러 작품 중에 뛰어난 작품을 선별하여 이를 온전하게 수록하여 엮는 선본에 비해, 초본은 하나의 글 안에서 정수가 되는 짧은 구절을 특정하여야 하므로 편찬자의 더욱 높은 문학적 이해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四部手圈』이 바로 정조 친찬 문헌 중 거의 유일하게 초본에 해당하는 문헌으로,¹⁵⁾ 정조가 세손시절부터 즐겨 읽은 문헌들을 대상으로 핵심이 되는 구절을 직접 절록하여 經·史·子·集의 분류로 구분하여 엮은 일종의 시리즈 문헌이다. 이때, 『사부수권』의 세부 목차를 살펴보면 『儀禮』, 『周禮』, 『禮記』를 대상으로 초절한 『三禮手圈』, 『사기』와 『漢書』, 『後漢書』를 대상으로 한 『兩京手圈』, 周敦頤, 程顥, 程頤, 張載 그리고 朱熹의 글을

11) 『弘齋全書』卷164, 日得錄 四 文學, “予平日看書則必鈔輯, 蓋所以提事實之繁要, 掇文詞之精英, 此亦博文約禮之工也. 自春邸時藏之巾箱者, 不知爲幾卷帙, 其中朱子大全語類, 陸宣公奏議二書, 近始脫藁編印矣. 近世搢紳子弟, 未嘗聞俯首讀一帙書, 誰欲下此勤劬之工夫乎.”

12) 『군서표기』 수록 문헌 총 155종 3991권 중 여찬 선본은 18종 738권에 해당한다.

13) 김문식은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에서 정조대의 문헌에 나타나는 내용적 특징을 1) 정본의 편찬, 2) 선본의 편찬, 3) 주석 및 참고자료 편찬으로 분석하였다.

14) 윤현정, 「朝鮮朝 正祖 御撰 選本の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의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9 참조.

15) 『聖學輯略』 또한 특히 중요한 내용만을 표시해 두었다가 뽑아 써서 엮은(乃點鈔其尤切要者, 編爲是書) 초본이지만, 세손시절 정조 본인의 공부를 위해 정리하고 편찬한 맥락이며 간행 계획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상으로 한 『五子手圈』, 육선공의 주의문을 초절한 『陸稿手圈』,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팔가수권』으로, 대다수가 이미 선본의 형식으로 간행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본으로 재차 편찬한 의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암송을 중시하였던 정조의 학문관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요점을 파악하여 초록하는 공부가 암기 및 암송 공부로 이어진 것인데, 이는 암송이 초록한 부분을 완전히 체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최종 단계이기 때문이다. 정조는 문신 金啓溫이 책을 외워야 한다는 張橫渠의 설에 대해 의리를 논하지 않고 책을 외우기만 하는 행위는 깊은 이해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며 의심하자, 그의 말을 ‘妄發’이라 꾸짖으며, 입으로는 외우면서 마음으로는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 않다고 답하면서 책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익숙하게 외우라고 충고하기까지 하였는데,¹⁶⁾ 이러한 사례는 암송에 대한 정조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즉, 선본이 초록하는 공부의 결과물이자 문장공부를 위한 讀本¹⁷⁾으로서 기능한다면, 그보다 양이 적고 요약된 초본은 초록한 핵심적인 부분을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뜻을 생각하여 체득하는 암송공부를 위한 특수 문헌이자 일종의 袖珍本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 점의 살코기를 맛보고서 술 전체의 고기 맛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百選이며, 五圭를 보고서 大璋을 알 수 있는 것이 手圈이다.”¹⁸⁾라는 정조의 自序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상으로는 그의 연속된 선본과 초본 편찬이 ‘교육용 문헌’이라는 같은 목적 하에 이루어진 듯 보이며,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여 『팔자백선』과 『팔가수권』의 편찬 의도를 모두 문풍을 바로잡기 위해 문인들에게

16) 『弘齋全書』卷133, 故寔 五 朱子大全, “答張元德書曰 橫渠成誦之說, 最爲徑捷, 蓋未論義理如何. 只是收得此心. 臣啓溫竊惟徑捷, 非學者所貴, 而成誦之弊, 或有流於口耳者, 且不論義理而只欲成誦, 則所成誦者, 必不能有沉潛咀嚼之味, 臣於此不能無疑也. 橫渠之成誦, 必不若爾, 豈有口能誦而心不能思其義者乎. 爾說大妄發. 於此有起惑于爾者, 爾先亦以才分之過人, 不肯咀嚼沉潛, 每當胄筵相對探討也. 聞其言志之說大槩, 頗類於今爾爲云, 爾則勿效之, 從吾所教, 讀之必醞熟, 熟又深蹟也.”

17) 독본이란 ①「명사」글을 읽어서 그 내용을 익히기 위한 책. ②「명사」주로 일반인에게 전문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은 입문서나 해설서.’의 뜻을 가진 용어로, 그 중에서도 ‘문장독본’은 ‘본보기로 삼을 만한 좋은 문장이나 문학 작품을 모아 엮은 책. 글 짓는 법을 가르치는데 쓴다.’는 의미를 지닌 명사로 활용된다(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18) 『弘齋全書』卷56, 雜著 三 示手圈校正諸學士, “嘗一櫛而知全鼎者, 百選也, 閱五圭而識大璋者, 手圈也.”

正文을 요약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¹⁹⁾ 그러나 본고는 정조의 초본과 선본은 그 기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초본을 재차 편찬한 의도를 기록뿐만 아니라 해당 문헌 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우선 정조 친찬 초본 중 『팔가수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해당 문헌은 『사부수권』내에서 子部에 해당하여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 편찬 시기를 살펴보면 『사부수권』중에서 가장 먼저 편찬 작업이 이루어져 정조의 초본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시초가 되는 문헌이기 때문이다.

Ⅲ. 『八家手圈』 編纂 과정

『팔가수권』편찬의 구체적인 과정은 이하의 『홍재전서』 기록과 卷首의 「丁巳三餘課程圖」(<그림 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마음에 맞는 곳에 푸른색의 批點을 찍고 또 붉은색의 圈點을 쳤는데, 비점은 이미 원본보다 간략하게 하였고, 권점 또한 비점보다 간략하게 하였으며, 책에다 그 권점 치는 것을 인하여 각기 하나의 계통을 이루게 하여 命名하기를 手圈이라 하였다.”²⁰⁾

19) 1장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는 모두 『팔가수권』을 사된 문풍을 바로잡기 위해 글공부하는 사람들이 짧은 분량으로 팔대가 문장의 진미를 알 수 있도록 편찬된 문헌으로 간주하였다. 강순에는 “『팔가수권』은 정조가 당송팔대가의 문장 중에서 문장의 규범이 될 만한 것 100선을 뽑아 만들었던 『어정팔자백선』에서 華實만을 선정하고 손수 비권하여 8권으로 완성하였다.”, “8대가의 문장 중에서 신비스런 광채와 정수를 추려서 100편을 뽑아 수권하여 『팔가수권』 8권을 완성하였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오역에 기인한 것으로, 『팔가수권』의 저본이 『팔자백선』인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20) 『弘齋全書』 卷56, 雜著 三 求諸圈跋語於四閣相及文衡, “既批青又圈以朱, 批既簡於原, 圈又約於批, 因書其圈, 而各成一統, 以命曰手圈.”

家手		丁巳三餘課程圖	
初一日	批	初一日	批
初二日	批	初二日	批
初三日	批	初三日	批
初四日	批	初四日	批
初五日	批	初五日	批
初六日	批	初六日	批
初七日	批	初七日	批
初八日	批	初八日	批
初九日	批	初九日	批
初十日	批	初十日	批
十一日	批	十一日	批
十二日	批	十二日	批
十三日	批	十三日	批
十四日	批	十四日	批
十五日	批	十五日	批
十六日	批	十六日	批
十七日	批	十七日	批
十八日	批	十八日	批
十九日	批	十九日	批
二十日	批	二十日	批
二十一日	批	二十一日	批
二十二日	批	二十二日	批
二十三日	批	二十三日	批
二十四日	批	二十四日	批
二十五日	批	二十五日	批
二十六日	批	二十六日	批
二十七日	批	二十七日	批
二十八日	批	二十八日	批

〈그림 1〉『家手圖』卷首「丁巳三餘課程圖」

이를 정리해보면, 『팔가수권』은 ‘批’, ‘校’, ‘選’, ‘校’의 네 단계를 거쳐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먼저 저본이 되는 『당송팔대가문초』에 푸른색으로 비점을 찍고, 비점이 찍힌 구절 중에서 붉은색으로 권점을 친 뒤, 권점을 친 부분들 중 일부를 재차 선별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선별된 구절을 교정하는 작업을 문인별로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편찬한 것이다. 「정사삼여과정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批’ 단계는 丁巳年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약 37일, ‘校’ 단계는 11월 중 약 17일, ‘選’ 단계는 이틀, ‘校’ 단계는 7일 가량이 소요되었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초고가 완성된 뒤 12월 중 21일에 걸쳐서는 ‘閱’, ‘批’, ‘校’ 작업을 다시 한 번 진행하였다. 총 60일이 넘게 진행된 셈인데, 이는 『삼례수권』이 20일, 『양경수권』 30일, 『오자수권』 57일, 『육고수권』이 10일 동안 편찬된 것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정조는 비권 작업을 하던 도중 洪就榮에게 아직 작업 중인 『팔가수권』을 살펴보고 잘못된 곳에는籤을 붙여 교정을 하도록 지시하였고,²¹⁾ 작업을 모두 마친 뒤에 다시 한 번 초계문신에게 교정하도록 하였다.²²⁾

이처럼 비점을 찍고 권점을 치는 등의 행위는 남송 시대 고문 선집이 선행하면서 사용된 중국의 전통적인 비평 방식이다. 처음에는 권점을 치거나 줄을 긋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독서 중 필기를 하던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 字法과 句法을 논하고 章法과 篇法을 분석하는 비평 방법으로 발전하였고, 더 나아가 評語까지 작성하면서 初學者들의 고문 학습을 돕는 역할로서 문장학의 의의를 가지게 되면서 전통적인 시문 비평 이론의 주요한 방식이 되었다. 특히, 『당송팔대가문초』를 저술한 모곤은 評點과 批評을 통하여 문장의 “法式”을 논평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는 명대 당송과의 핵심적인 문학 이론 중의 하나였다. 실제로 그는 『당송팔대가문초』凡例에 평점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문장의 아름다운 부분은 먼저 동그란 권점(圓點)을 넣고, 그 다음으로 아름다운 부분은 뾰족한 권점(尖點)을 넣었으며, 그 다음 아름다운 곳은 旁點을 찍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²³⁾

권점본은 분명히 학습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문헌으로 발전해왔지만, 한편으로는 편찬자의 명성과 학술적 권위가 높을수록 시문 비평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덩달아 해당 권점본의 수요가 증가하여 널리 읽혀지는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애초에 권점을 치는 문인 스스로 자신의 문학적 안목에 대한 높은 자신감이 전제되어야 이러한 작업을 해낼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조의 경우 『팔가수권』을 편찬할 때 초학자들의 작법 공부를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학자로서 자신의 신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크게 내재되어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정조가 권점을 치는 행위를 자신이 朱子의 道統을 잇는 학자임을 표출하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였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금 내가 비점을 찍고 권점을 친 작업은 대체로 주자가 물려준 뜻에서이다.”²⁴⁾라는 언급이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송팔대가의 글은 手圈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주자는 한유와 유종원의 글만 즐겨 읽었을 뿐만이 아니니, 그가 南康軍에

21) 강순애,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四部手圈』 편찬·교정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서지학연구』 78, 한국서지학회, 2019 참조.

22) 『內閣日曆』 正祖 21年(1797) 12月 22日, “八家手圈校準, 抄啓文臣 李勉兢, 鄭晚錫, 金履喬, 別省記入宿.”

23) 당윤희, 「모곤(茅坤)의 당송(唐宋) 고문(古文) 평점(評點) 비평에 대한 고찰-《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抄)》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86, 한국중국어문학회, 2016 참조.

24) 『弘齋全書』 卷56, 雜著 三 求諸圈跋語於四閣相及文衡, “今予批圈之作, 蓋朱子之遺意也.”

있으면서, 彭蠡에 배를 띄우고 소식이 지은 적벽부의 …… 구절로 韻을 나누어 시를 읊었으니, 소식의 사람 됨됨이를 취한 것이 아니고 그의 문장을 취한 것이다.”²⁵⁾, “수십 권의 책이라 하더라도 머릿속에 간직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절록을 해서 간략하게 하여 그 살펴보고 열람하는 데 편리하게 하고 전체를 꿰뚫는 바탕이 되도록 하는 것만 하겠는가.”²⁶⁾ 등의 언급을 통해 정조는 주자가 평소 팔대가의 문장을 암송하였던 사실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서명을 ‘수권’이라고 명명한 이유에 대해 ‘직접 모아서 편집했다는 의미를 취한 것’이며, 英陵(世宗)이 구양수와 소식의 手柬(親筆信)을 천백번 便覽했다는 일화를 繼述하여 ‘수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²⁷⁾이라고 말한 기록을 통해, 결국 정조 본인의 학문을 닦는 데에 편리한 문헌을 편찬하고자 했던 의도가 주가 되어 『팔가수권』을 편찬하였다고 하여도 과오는 아닐 것이다.²⁸⁾

그 결과, 보통의 권점본에는 비점이나 권점 옆에,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덧붙여져 있어 독자의 학습을 도와주는 데에 반해, 정조의 『팔가수권』에는 해당 구절이 초절된 까닭이나 자법, 구법 등에 대한 논평은 일체 생략되고 정조가 비점과 권점을 친 구절 본문만이 수록되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정조는 自序에서 “세상에서 문장을 배우려는 자가 여기에서 그 꽃과 열매를 씹어 보고 음미하며 점차 瓊琚나 韶濩처럼 아름다운 문장을 지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바이다.”²⁹⁾라고 하며 문장학습서로서 『팔가수권』을 편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문헌의 편찬 과정을 살펴보면 정작 독자의 문장학습을 도와주는 평어에

25) 앞의 책, “或曰, 八家不必圈也. 予以爲朱子不但喜讀韓柳, 其在南康軍也, 汎舟彭蠡, …… 分韻賦詩, 非取其人也, 取其文也.”

26) 앞의 책, “卷雖數十, 若不爲身有, 則曷若節而略之, 以便其省閱, 以資其貫洽乎”

27) 『日省錄』 正祖 22年(1798) 4月 19日, “蓋取手自裒輯之義也, 嘗見野史, 英陵朝有歐蘇手柬便覽之語, 今以手圈名者, 亦仰述之意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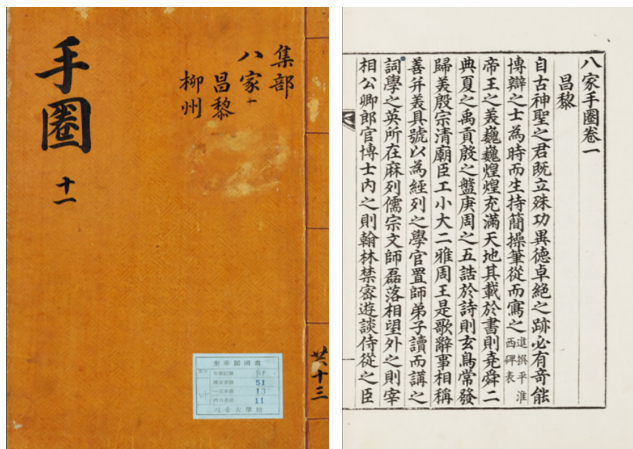
28) 한편, 『四部手圈』편찬의 의도에 대해 정조가 어정서 편찬 과정에서 여러 각신과 초계문신들에게 교준과 교감, 교열 등 여러 작업에 참여하도록 명령한 사실 자체를 자신의 문치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편 중 하나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경전의 핵심을 선별하고 검토하고 수권하는 작업에 신하들에게 동참시킴으로써 그 편찬 자체로 치세의 당국자들이 순정한 문체를 스스로 습득하게 하는 과정이며, 이는 곧 정조의 문치 수용과 구현이라는 맥락이다. 백승호, 『정조의 문치』, 휴머니스트, 2020 참조.

29) 『弘齋全書』 卷56, 雜著 三 示手圈校正諸學士, “世之學文章者, 於此乎咀嚼其華實, 而駸駸然至於瓊琚韶濩之美, 則予所蘄也.”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 학습서로서의 기능과는 거리가 다소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V. 『八家手圈』의 구성

『팔가수권』은 당송팔대가 한유, 유종원, 왕안석, 구양수, 소순, 소식, 소철, 증공의 순서대로 한 문인 당 한 卷씩 총 8권이 한 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75首의 작품이 絶句되어 수록되어 있다. 3책 8권으로 이루어진 『팔가수권』 각 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1 卷首에 「정사삼여과정도」와 「시팔자수권등본교정제학사」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권이 일괄적으로 목차 없이 卷首題와 卷次 표시 이후 곧바로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은 문인의 號를 한 칸 낮추어 표시한 뒤 일체의 비평이나 細註 없이 大字로 초록된 구절이 쓰여 있으며,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해당 구절의 작품명이 小字雙行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구절이 끝나는 경우와, 같은 작품 안에서 여러 구절이 초록된 경우에 줄을 바꾸어 싣고, 이외에는 칸을 낮추거나 줄을 바꾸는 일 없이 본문을 수록하고 있다. 다만, 같은 작품 안에서 여러 구절을 절록하더라도 내용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줄을 바꾸지 않고 이어서 수록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림 2〉 『八家手圈』十一卷 表紙와 卷首題

『팔가수권』의 구성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문체와 글쓴이, 작품명 등의 정보보다 초록된 구절을 강조하여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는 점이다. 卷首에 실린 「정사삼여과정도」에서는 각 문인별로 批圈 작업을 진행한 문체와 그 작품 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후 『팔가수권』 본문부터는 목차 없이 인물별 구분을 권별로 대체했을 뿐, 문체에 따른 구분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인물별로 초록되어 실린 문체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목차를 두면 문헌의 구성이 다소 복잡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자가 이 문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암송하기에 편리하도록 문헌을 구성한 것이라고 간주하더라도 억측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상의 특징은, 교육의 목적을 띠고 실용서로서 편찬된 『팔자백선』과 비교해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팔자백선』의 경우, 수록 작품을 문체별로 먼저 구분한 뒤 한 칸 낮추어 작품명을 제시하고 저자명은 그 아래에 ‘唐韓愈’, ‘宋蘇軾’과 같이 병기하여 독자가 익히고자 목표로 삼은 문체를 설정한 뒤 그 범주에 해당하는 모범 작품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작품을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총목과 권별 목차까지 제공하고 있다.³⁰⁾ 같은 문헌을 저본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용 문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독자를 의식하여 편찬된 『팔자백선』과 구성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팔가수권』을 교육용 문헌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측하기는 다소 어렵다.

한편, 당송팔대가 8명의 나열 순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문인의 탄생연대 순차로 나열하되, 소순·소식·소철 三父子, 즉 ‘三蘇’는 한데 묶어 구성하고 있는 『당송팔대가문초』나 『팔자백선』과 달리 『팔가수권』은 왕안석의 순서를 구양수의 앞, 유종원의 뒤에 두고 있다. 이러한 차례는 권수에 붙어있는 「시팔자수권등본교정제학사」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된다.

“나는 이전에 이들을 옛사람과 비유해 본 적이 있다. 즉 昌黎의 글은 管子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먼저 곡식 창고를 충실히 하고 다음에 군사를 훈련하며, 인구가 많아지고 국력이 강대해진 다음에야 자유로이 정벌에 나섰던 것과 같

30) 윤현정, 「『八子百選』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研究」, 『大東文化研究』 9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참조.

다. 柳州와 臨川의 글은 마치 張湯이 獄事를 처리함에 있어 흉폭한 獄吏들이 엄격하고 각박하게 조사하는 것을 治獄의 근본으로 삼고, 종합하여 밝히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던 것과 같다. 廬陵의 글은 羊叔子가 荊州에 주둔해 있을 때에 …… 蘇氏 삼부자 가운데 老蘇의 글은 莊生의 說劍篇처럼 신기하고 괴이한 현상이 갖가지로 출현하고, 長蘇의 글은 …… 韓信처럼 변화무쌍하고, 少蘇는 학문을 한 힘으로 황자에게서 하사받은 車馬와 印綬를 늘어놓고 여러 자제들에게 자랑한 桓榮과 같다. 南豐은 깨끗한 조정과 혼탁한 조정의 사이에서 알맞게 처신한 卓茂와 같다. 총괄하여 말한다면 비록 霸道 정치를 하고 왕도 정치를 하지는 못했지만 張湯 이하 모두가 管夷吾만 못한 것이 분명하다.”³¹⁾

이상의 글에서 정조는 팔대가의 문장을 역사 속 인물에 비유하며 평가하고 있는데, 이 때 유종원과 왕안석의 문장을 한데 묶어 張湯이 옥사를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정조는 이전에도 왕안석의 문장에 대해 “준엄하고 각박함[峭刻]”,³²⁾ “엄중하고 모범이 됨[矜則]”³³⁾이라고 표현하며 그 장점을 준엄함에 초점을 맞추어 평한 바 있는데, 유종원의 문장에 대해서도 “기발함(奇)”과 “준엄하고 각박함(峭刻)”을 훌륭한 점으로 꼽고 있다. 즉, 각 문인마다 정조 본인의 감상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氣像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순서를 본인의 기호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팔가수권』이 『당송팔대가문초』를 저본으로 抄節하여 편찬된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편찬자의 감상에 따라 당송팔대가의 나열 순서를 바꾼 점은 학자로서 정조의 독자적인 면모와 입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팔가수권』에 수록된 작품의 세부적인 편명과 그 수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 31) 『弘齋全書』 卷181, 羣書標記 三 ○御定 三 八家手圈, “竊嘗譬之古人焉, 昌黎如管子治國, 先實其倉廩, 次鍊其甲兵, 既庶既彊, 取之無禁. 柳州, 臨川如張湯按獄, 吏虎而冠, 刻核以爲治, 綜明以爲名. 廬陵如羊叔子之在荊州, …… 蘇氏三父子, 老如莊生說劍, 光怪百出, 長如韓信耀兵, …… 變化不窮, 少如桓榮稽古, 陳車馬印綬, 以誇羣子弟, 南豐如卓茂行己, 在清濁之間. 摠而論之, 雖霸而不王, 張湯以下, 一切俯首於管夷吾審矣.”
- 32) 『弘齋全書』 卷4, 春邸錄 四 ○序引 八家百選引, “韓之正, 柳之奇, 歐之溫雅, 王之峭刻, 曾之切實, 蘇氏父子之汪洋而縱橫者.”
- 33) 『弘齋全書』 卷179, 羣書標記 一 ○御定 一 八子百選, “韓之奇崛, 柳之峭刻, 歐之演迤, 蘇之雄放, 王之矜則, 曾之謹嚴.”

〈표 1〉『팔가수권』의 구성

著者	文體 (絶句數)	篇名
韓愈	表 (4)	進撰平淮西碑文表, 論佛骨表, 潮州刺史謝上表, 論捕賊行賞表
	狀 (2)	復讐狀, 論今年權停舉選狀
	書 (22)	上張僕射書, 上(兵部)李侍郎書, (鄧州北寄)上(襄陽)于相公書, 上宰相書, 後十九日復上書, 與孟尚書書, 應科目時與人書, 與于襄陽書, 爲人求薦書, 代張籍與李浙東書, 與孟東野書, 與崔群書, 與衛中行書, 與(少室)李拾遺書, 與馮宿論文書, 答劉正夫書, 答李翊書, (重)答張籍書, 答崔立之書, 答陳商書, 答李秀才書, 答尉遲生書
	序 (19)	送鄭尚書序, 送許郢州序, 贈崔復州序, 送(幽州)李端公序, 送殷員外序, 送楊少尹序, 送竇從事序, 送石處士序, 送溫處士(赴河陽軍)序, 送孟東野序, 送董邵南序, 送王秀才序, 送區冊序, 送李愿歸盤谷序, 送廖道士序, 送(浮屠)文暢師序, 送高閑上人序, (上巳日燕)太學聽彈琴詩序, 荊潭唱和詩序, 韋侍講盛山十二詩序
	記 (5)	新修滕王閣記, 藍田縣丞廳壁記, 畫記, 汴州(東西)水門記, 鄆州谿堂詩記
	傳 (2)	圻者王承福傳, 毛穎傳
	原 (3)	原道, 原毀, 原人
	論 (2)	省試(顏子)不貳過論, 爭臣論
	議 (1)	改葬服議
	辨 (1)	諱辯
	解 (3)	進學解, 獲麟解, 擇言解
	說 (2)	師說, 雜說
	頌 (1)	伯夷頌
	雜著 (6)	張中丞傳後叙, 讀儀禮, 送窮文, 貓相乳, 守戒, 通解
	碑 (3)	處州孔子廟碑, 南海神廟碑, 平淮西碑
	碑銘 (2)	田弘正先廟碑銘, (柳州)羅池廟碑
	墓誌銘 (3)	(唐故朝散大夫)商州刺史(除名徙封州)董(府君)墓誌銘, (尚書庫部郎)中(鄭君)墓誌銘, 試大理評事王君墓誌銘
	墓碣 (5)	殿中少監馬君墓誌銘, 國子助教(河東)薛(君)墓誌銘, 柳子厚墓誌銘, (南陽)樊紹述墓誌銘, 貞曜先生墓誌銘
	祭文 (4)	祭田橫墓文, 祭鱸魚文, 祭柳子厚文, 祭(河南)張員外文
	小計	90首

柳宗元	書 (23)	與李翰林建書, 寄許京兆孟容書, 與楊京兆憑書, 與蕭翰林乂書, 與顧十郎書, 與裴埴書, 與太學諸生(喜詣闕留陽城司業)書, 與崔饒連州論石鍾乳書, 與李睦州服氣書, 與楊誨之疏解車義(第二)書, 與韓愈論史(官)書, 與友人(論文)書, 答韋中立論師道書, 答吳秀才(謝示新文)書, 復杜溫夫書, 答韋珩(示韓愈相推以文墨事)書, 答(貢士)沈起書, 答嚴厚輿(論師道)書, 報袁君陳秀才避師名書, 上李夷簡相公書, 答元饒州(論政理)書, 與呂恭書, 賀(進士)王參元失火書
	啓 (5)	上(西川)武元衡相公(謝撫問)啓, 賀趙江陵(宗儒)辟符載啓, 上(襄陽)李僕射慤獻唐雅(詩)啓, 上權德輿補闕(溫卷)啓, 上(大理)崔大卿(應制舉)啓
	序 (9)	(柳宗直)西漢文類序, 楊評事文集(後)序, 愚溪詩序, 陪(永州)崔使君遊譙(南池)序, 送琛上人(南遊)序, 送元(十八)山人(南遊)序, 送僧浩初序, 序飲, 序碁
	傳 (3)	(種樹)郭橐駝傳, 梓人傳, 宋清傳
	記 (20)	嶺南(節度使)饗軍堂記, 興州江運記, 永州新堂記, 零陵郡復乳穴記, 零陵三亭記, (桂州)訾家洲亭記, (邕州)馬退山茅亭記, 遊黃溪記, 始得西山宴遊記, 鉅鉤潭記, 錙鉤潭西小丘記, (至小丘西)小石潭記, 袁家渴記, 石澗記, 小石城山記, 柳州東亭記, (永州)萬石亭記, (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 (永州)龍興寺(修)淨土院記, (永州)鐵爐步志(記)
	論 (3)	封建論, 四維論, 守道論
	議 (1)	駁復讐議
	辨 (2)	桐葉封弟辯, 論語辯
	說 (4)	(觀)八駿圖說, 捕蛇者說, 鵠說, 說車(贈楊誨之)
	雜著 (6)	(讀韓愈所著)毛穎傳後題, 晉文, 乞巧文, 斬曲几文, 黔之驢, 愚溪對
	碣 (1)	(國子)司業陽城遺愛碣
	狀 (1)	段太尉逸事狀
	小計	78首
王安石	上書 (1)	上仁宗皇帝(言事)書
	筭 (2)	本朝百年無事筭子, 上五事筭子
	疏 (1)	進戒疏
	表 (9)	除平章事(監修國史)謝表, (觀文殿學士)知江寧府謝(上)表, 除平章事(昭文館太學士)謝表, (李舜舉)賜詔書藥物謝表, 乞退表, 乞宮觀表, (手詔)令視事謝表, 進字說表, 除翰林學士謝表

王安石	啓 (1)	上(杭州)范資政啓
	書 (15)	上執政書, 上杜學士書, 上人書, 與(參政)王禹玉書, 與馬運判書, 上邵學士書, 與祖擇之書, 請杜醇先生入縣學書, 答曾公立書, 答司馬諫議書, 答曾子固書, 答(韶州)張殿丞書, 答徐絳書, 答楊忱書, 答陳杞書
	序 (8)	周禮義序, 書義序, 詩義序, (熙寧)字說序, 靈谷詩序, 石仲卿字序, 送陳升之序, 送孫正之序
	記 (11)	虔州學記, 繁昌縣學記, 慈溪縣學記, 度支副使廳壁(題名)記, 桂州新成記, 君子齋記, 石門亭記, (楊州)龍興講院記, (真州)長蘆寺經藏記, (廬山)文殊像現瑞記, (漣水軍)淳化院經藏記
	論 (5)	三聖人論, 莊周論, 九卦論, 禮論, 禮樂論
	原 (1)	原教
	雜著 (3)	讀孔子世家, 讀孟嘗君傳, 書洪範傳後
	碑 (1)	虞部郎中(贈衛尉卿)李公神道碑
	墓誌銘 (1)	(臨川)吳子善墓誌銘
	祭文 (1)	祭歐陽文忠公文
	小計	60首
歐陽脩	上書 (1)	(通進司)上皇帝書
	劄子 (4)	(論)議濮(安懿)王典禮劄子, 論臺諫(官)唐介等(宜早)牽復劄子, 論逐路取人劄子, 言青苗錢(第一)劄子
	狀 (1)	論杜衍范仲淹等罷政事狀
	表 (5)	謝知制誥表, 謝(宣召)入翰林表, 進新脩唐書表, 邠州乞致仕(第二)表, 蔡州乞致仕(第二)表
	啓 (4)	謝(襄州)燕龍圖肅惠詩啓, 謝石秀才啓, 謝校勘啓, 謝進士及第啓
	書 (5)	上范司諫書, 與陳員外書, 與張裴書, 答祖擇之書, 答徐無黨(第一)書
	論 (3)	本論, 朋黨論, 縱囚論
	史論 (3)	唐書刑法志, 唐書禮樂志論, 唐書食貨志論
	序 (18)	內制集序, 蘇氏文集序, 廖氏文集序, 梅聖俞詩集序, 釋惟儼文集序, 釋秘演詩集序, 章望之字序, 張應之字序, 送徐無黨(南歸)序, 送楊寘序, 送(秘書丞)宋君歸太學序, 送梅聖俞(歸河陽)序, 傳易圖序, 詩譜(補亡)後序, (刪正)黃庭經序, 韻總序, 續思穎詩序, 集古錄目序
	傳 (1)	六一居士傳

歐陽脩	記 (14)	仁宗御飛白記, (相州)畫錦堂記, 有美堂記, 岷山亭記, 李秀才東園亭記, (海陵)許氏南園記, 菱溪石記, 浮槎山水記, 游儵亭記, 伐樹記, 豐樂亭記, 醉翁亭記, 畫舫齋記, 王彥章畫像記
	碑銘 (3)	忠武(軍)節度使(同中書門下平章事)武恭王公神道碑銘, 太尉文正王公神道碑銘, (太子)太師(致仕贈司空兼侍中)文惠陳公堯佐神道碑銘
	墓誌銘 (7)	端明殿學士蔡公襄墓誌銘, 集賢院學士劉公敞墓誌銘, 資政殿學士(尚書戶部侍郎)簡肅薛公公墓誌銘, 翰林侍讀(學士右諫議大夫贈工部侍郎)張公錫墓誌銘, 徠石先生介墓誌銘, (故霸州)文安(縣)主簿蘇君仝墓誌銘, 孫明復先生墓誌銘
	墓表 (4)	石曼卿墓表, 太常博士周君堯卿墓表, 胡先生瑗墓表, 瀧岡刊表
	祭文 (3)	祭資政范公文, 祭蘇子美文, 祭石曼卿文
	頌 (2)	會聖宮頌, 跋唐華陽頌
	賦 (2)	秋聲賦, 憎蒼蠅賦
	雜著 (2)	論尹師魯墓誌, 書梅聖俞墓後
	小計	82首
蘇洵	上書 (1)	上仁宗皇帝書
	書 (5)	上韓樞密書, 上田樞密書, 上余青州書, 上歐陽內翰書, 再上歐陽內翰書
	論 (6)	易論, 樂論, 史論, 諫論, 辨奸論, 審勢論
	權書 (3)	權書心術, 攻守, 高帝
	衡論 (3)	衡論御將, 議法, 田制
	記 (3)	張益州畫像記, 木假山記, 蘇氏族譜亭記
	說 (2)	名二子說, 仲兄文甫說
	引 (1)	族譜引
	小計	24首
蘇軾	制策 (2)	御試制科策, 擬進士對御試策
	上書 (4)	上神宗皇帝書, 代張方平諫用兵書, 代滕甫論西夏書, 代滕甫辯滂乞郡書
	劄子 (1)	(乞)校正陸贄奏議(進御)劄子
	狀 (4)	(朝辭)赴定州論事狀, 諫買浙燈狀, 論積欠(六事并乞檢會應詔四事一處行下)狀, 乞開(杭州)西湖狀
	表 (2)	(杭州)謝放罪表, 謝兼侍讀表
	啓 (5)	謝賈朝奉啓, 賀韓丞相再入啓, 謝王內翰啓, 答王承議啓, 答王幼安(宣德)啓

蘇軾	書 (12)	上富丞相書, 上王兵部書, 上梅直講書, (應制舉)上兩制書, 上韓魏公(論場務)書, 答畢仲舉書, 答張文潛書, 答黃魯直書, 答秦太虛書, 答謝舉廉書, 答劉沔書, 答李端叔書
	論 (12)	大臣論, 思治論, 始皇論, 伊尹論, 樂毅論, 商君論, 戰國任俠論, 范增論, 留侯論, 賈誼論, 荀卿論, 續(歐陽子)朋黨論
	試論 (5)	刑賞忠厚之至試論, 重巽以申命試論, 物不可以苟合試論, 形勢不如德試論, 王者不治夷狄試論
	策 (11)	策略, 決壅蔽策, 無責難策, 無沮善策, 敦教化策, 省費用策, 勸親睦策, 均戶口策, 倡勇敢策, 定軍制策, 策斷
	序 (2)	范文正公文集序, 六一居士集序
	傳 (1)	方山子傳
	記 (16)	仁宗(皇帝)飛白御書記, 醉白堂記, 墨君堂記, 靈壁張氏園亭記, (王君)寶繪堂記, 李氏山房藏書記, 文與可偃竹記, (眉州)遠景樓記, 喜雨亭記, 凌虛臺記, 超然臺記, 遊桓山記, 石鍾山記, 大悲閣記, 四菩薩閣記, 衆妙堂記
	碑 (4)	上清儲祥宮碑, (潮州)韓文公廟碑, 表忠觀碑, 司馬溫公神道碑
	銘 (4)	三槐堂銘, 德威堂銘, 九成臺銘, 擇勝亭銘
	贊 (4)	文與可飛白贊, 韓幹畫馬贊, 三馬圖贊, 磨衲贊
	頌 (1)	十八大阿羅漢頌
	說 (1)	稼說
	賦 (2)	前赤壁賦, 後赤壁賦
	祭文 (2)	祭歐陽文忠公文, 祭魏國韓(令)公文
	雜著 (4)	傳神, 書六一居士傳後, 書黃子思詩集後, 書東臯子傳後
	小計	99首
蘇轍	上書 (1)	上神宗皇帝書
	書 (3)	上(樞密)韓太尉書, 上兩制諸公書, 上劉長安書
	啓 (1)	賀文太師致仕啓
	論 (3)	周論, 老子論, 新論
	古史論 (1)	王翦論
	策 (3)	君術策, 巨事策, 民政策
	序 (1)	古史敘
	記 (3)	(南康)直節堂記, (齋州)閔子廟記, (杭州)龍井院訥齋記

蘇轍	辭 (1)	御風辭
	雜著 (1)	書金剛經後
	小計	18首
曾鞏	疏 (2)	熙寧轉對疏, (移滄州)過闕上殿疏
	筭 (1)	議經費筭子
	書 (3)	與孫司封書, 與撫州知州書, 寄歐陽舍人書
	序 (4)	戰國策(目錄)序, 太祖皇帝總序, 列女傳目錄序, (相國寺)維摩院聽琴序
	記 (10)	宜黃縣學記, 齊州二堂記, (撫州)顏魯公祠堂記, 墨池記, 歸老橋記, 醒心亭記, 擬峴臺記, 學舍記, 南軒記, 仙都觀三門記
	論 (1)	唐論
	議 (3)	講官議, 爲人後議, 救災議
	雜著 (1)	蘇明允哀辭
	小計	25首
	總計	475首

이상의 표에 괄호 처리된 부분은 주로 인명이나 직위명, 지명 등에 해당하는 글자들로, 모두 생략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과감한 생략은 편명에서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에서도 나타나는데, 원문에서 절록한 구절을 그대로 수록하지 않고 번잡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줄인 부분에 임의로 글자를 넣는 등 수정이 가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⁴⁾ 繁多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白文本³⁵⁾을 선호하였던 정조의 학문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의 親撰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문인별 수록 편수를 헤아려보면 한유 90편, 유종원 78편, 왕안석 60편, 구양수 82편, 소순 24편, 소식 99편, 소철 18편, 증공 25편으로 소식이 가장 많고 한유가 그 다음으로,³⁶⁾ 『팔자백선』에는 한유의 글이 30%에 해당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34) 왕결청, 『『八家手圈』에 보이는 選本상의 특징과 韓愈文의 수용 양상』, 『열상고전연구』 53, 열상고전연구회, 2016 참조.

35) 주석이 있는 문헌에서 주석을 실지 않고 정문만을 수록한 문헌을 가리킨다. (指有注釋的書不錄注釋只印正文的書, 한어대사전)

36) 서울대학교규장각의 영인본 『四部手圈』해제에서는 문인별 수록 편수를 「정사삼여과정도」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批’ 단계에 작업한 편수로, 이후 ‘圈’, ‘選’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체별 수록 편수는 書가 88편으로 가장 많고, 記가 82편으로 그 다음이며, 序가 61편, 論이 35편, 表가 20편, 啓 16편, 策 14편, 墓誌銘 11편, 祭文이 10편이며 그 외 문체는 10편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팔자백선』 수록 문체는 記가 가장 많고, 序가 그 다음, 書는 세 번째로 많으며, 祭文, 策, 表 등은 5편 이하로 매우 적은 것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팔가수권』의 경우, 저본인 『당송팔대가문초』에 직접 권점과 비점을 쳐서 선별과 교감 후 수록하는 편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모곤의 문헌에 수록된 문인과 문체의 비율, 그리고 문인별 문체 나열 순서까지 거의 그대로 반영된 반면³⁷⁾, 『팔자백선』의 경우, 문체별로 특장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을 독자가 참고하며 익히기에 편리하도록 구성한 것³⁸⁾에서 기인한다. 즉, 『팔가수권』은 정조가 모곤의 『당송팔대가문초』를 약 60일간 완독하면서 개인적인 문학관에 따라 훌륭하다고 생각한 구절들을 정리하여 암송하기에 편리하도록 엮은 문헌이고, 『팔자백선』은 문장 공부를 목표로 하는 독자를 의식하여 문체별로 학습하기에 편리하도록 엮은 문헌이라는 점을 수록 작품의 비율을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두 문헌의 수록 작품을 비교해보면 『팔자백선』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팔가수권』에는 미수록된 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衢州徐偃王廟碑」, 「祭十二郎文」(한유), 「說車贈楊誨之」(유종원), 「原過」(왕안석), 「五代史伶官傳論」(구양수), 「管仲論」, 「高祖論」(소순), 「錢塘勤上人詩集序」(소식), 「巢谷傳」(소철)의 총 9편이 그것이다. 이 중 유종원의 「설거증양회지」의 경우, 조선에 널리 통행되어 당송팔대가의 문장을 습득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文章正宗』, 『古文眞寶』, 『文章軌範』, 『古文關鍵』, 『古文觀止』 등의 선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글이다. 해당 글은 유종원이 元和 4년(809) 永州司馬로 있을 때 쓴 작품으로, 자신의 처남인 楊誨之가

수록된 편수와 다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본문에 근거하여 수록 편수를 계산하였음을 밝힌다.

37) 『당송팔대가문초』의 문체별 수록 편수를 살펴보면 論과 記, 書, 그리고 序가 많고 傳이 가장 적다.

38) 『팔자백선』에 나타나는 문체의 분류와 순서를 살펴보면, 실용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여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原, 辯 등의 私議의 論은 잡저에 분류하여 論, 策과 구분하였고, 書와 序를 나란히 두어 비슷한 성격의 글을 묶어둔 점, 雜著에 속한 글의 대부분이 序, 記이므로 맨 뒤에 두지 않고 序와 記 뒤에 차례 하게 한 점 등이 그 근거이다.

臨賀로 가던 길에 수레를 주제로 그와 함께 대화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수레가 정방형의 짐칸과 원형의 바퀴가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비유를 들면서, 마음은 원칙을 지키고 행동은 유연하게 취하여 자기의 존재가치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도 부질없이 적을 만들지 않고 세상을 여유롭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³⁹⁾으로, 문장이 화려하거나 매우 뛰어난 구절이 있다는 평가는 없지만 문장에 담긴 道가 유가에서 추구하는 바와 합치되는 내용인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점으로 인해 『팔자백선』에는 수록되고 『팔가수권』에는 미수록된 것으로 추측된다.

왕안석의 「원과」는 儒家的 性善說의 입장에서, 과오를 고치는 것에 대해 철학적으로 논한 글이다. 모곤은 『당송팔대가문초』에서 이 글에 대해 “글이 300자를 넘지 않으면서도 轉折과 變化가 無窮하다.(文不踰三百字而轉折變化不窮)”라고 평하였는데, 정조는 『팔자백선』을 편찬할 때에 성리학적 관점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호하였기 때문에⁴⁰⁾ 작품의 길이가 짧고 문장 수식이 뛰어난 부분은 없지만 이 글을 수록한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과오는 아닐 것이다. 소순의 「관중론」, 「고조론」의 경우, 다른 당송팔대가 선본에도 수록되어 있는 글로, 대상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뒤엎는 소순의 독특한 견해가 인상적인 역사인물론 시리즈 중 대표적인 글로 평가받는다. 해당 글은 소순의 논리가 담긴 전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팔자백선』에는 수록되었지만 일부를 절록하는 『팔가수권』에는 수록되기에 다소 부적합하여 누락된 듯하다.

이상과 같이 정조는 『팔자백선』을 편찬할 때에 특정 구절이 뛰어난지를 살피기보다는 글 전체에 담긴 내용, 즉 ‘道’가 성리학적 가치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였다. 반면, 『팔가수권』을 편찬할 때에는 글 전체의 내용보다는 일부 문장 표현이 뛰어난 구절이나 본인의 기호에 맞는 부분을 절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수록 작품에 출입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팔가수권』에 절록된 구절의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본다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⁴¹⁾

39) 『역주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 2』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4c0212&titleId=C42)

40) 『팔자백선』 수록 작품을 6종의 문장 선집과 비교한 결과, 『문장정중』과 59편이 중첩되어, 정조가 성리학의 관점에 입각한 내용의 작품을 선별하였다는 특성이 도출되었는데, 왕안석의 「원과」는 『팔자백선』과 『문장정중』에만 수록된 글이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윤현정, 「『八子百選』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研究」, 『大東文化研究』 9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참조.

V. 『八家手圈』의 節錄 분석

1. 절록 방식 상의 특징

『팔가수권』의 편찬 목적이 정조 본인의 기호에 맞는 부분을 사적으로 편리하게 암송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팔가수권』에 절록된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절록 방식에서 보이는 특징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팔가수권』에 수록된 韓愈文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⁴²⁾가 『팔가수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어나 부사절, 접속사 등을 삭제하고 특정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데 몇몇 수록 부분은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부사절, 접속사 등을 생략하는 절록 방식은 蘇軾의 「思治論」 중 『팔가수권』 절록 부분을 음영으로 표시한 아래의 예시와 같다.

<思治論> 中

故 萬全之利 以小不便而廢者 有之矣 百世之患 以小利而不顧者 有之矣
所用之人 無常責 而所發之政 無成效 此猶適千里不賣糧而假丐於塗人 治病 不知其所
當用之藥 而百藥皆試 以僥倖於一物之中 欲三患之去 不可得也

‘故’와 ‘矣’ 따위의 접속사와 어조사를 한 글자에 불과하지만 모두 생략한 뒤, 비유 구절도 한 가지만 남겨놓고 생략하여 중복을 피하고 있다. 이 때, 앞쪽에 ‘此猶’는

41) 오수형은 선행연구에서 『팔자백선』과 『팔가수권』을 통해 정조의 한유, 유종원, 소식의 문장 수용 양상을 분석한 바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보다 표현법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왕권의 절대적 위상에 불리한 내용은 피하고 있으며, 서독류의 실용적 용도와 잡기류의 비유법, 강조법 등 각종 수사법에 관심을 보이며 明末 小品文의 유행에 대해 전통적 미문의식으로 맞서고 있는 동시에, 載道論의 문학관을 지니면서도 문학의 효용에 대해 개방적인 유종원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팔자백선』과 『팔가수권』을 모두 정조의 팔대가 선집으로 여기고, 두 문헌이 선본과 초본이라는 문헌 형식 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본고에서 연구자가 추구하는 연구 목적과 다소 방향이 다르다.

42) 왕결청은 선행연구에서 문장 안에서 부사절이나 접속사 등을 삭제하는 방법을 통해 인물이 처한 특정 상황이나 수사적 언어를 일반화하여 본래 문장이 지니는 의미에서 벗어나는 점과 한유문 가운데 길고 화려한 배비구를 선호하여 한유문이 지닌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 점을 『팔가수권』에 수록된 한유문의 절록 양상으로 분석하였다.

남겨놓고 첫 번째 비유 구절인 ‘適千里’는 생략한 뒤, 두 번째 비유 구절인 ‘治病’부터 채택하여 앞의 ‘차유’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연결한 점이 돋보인다. 이와 같은 정조의 절록 방식은 『팔가수권』 이전에도 살펴볼 수 있는데, 李滉의 『朱子書節要』를 본떠 陸贄의 奏議文 29편을 대상으로 字句를 刪節하여 정조 21년(1797)에 정유자로 간인한 『陸奏約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번다하다고 여긴 부분을 탈락시키고 그 앞뒤 부분을 과감하게 합치거나, ‘者’나 ‘謹奏’와 같은 사소한 글자도 모두 생략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절록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삭제해도 의미전달에 무방한 단락과 불필요한 내용, 부연 설명한 부분을 탈락시킨 점이 동일하다. 이러한 세밀하고 과감한 절록 방식은 정조가 절록의 대상이 되는 문장에 대한 이해와 편집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⁴³⁾으로, 정조의 절록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다음으로, 주어와 상황 설명을 생략한 예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秋聲賦>

歐陽子方夜讀書 聞有聲 自西南來者 悚然而聽之曰 異哉 初淅瀝以蕭颯 忽奔騰而砰湃 如波濤夜驚 風雨驟至 其觸於物也 鏗鏘錚錚 金鐵皆鳴 又如赴敵之兵 銜枚疾走 不聞號令 但聞人馬之行聲 余謂童子 此何聲也 汝出視之 童子曰 星月皎潔 明河在天 四無人聲 聲在樹間 余曰 噫嘻悲夫 此秋聲也 胡爲而來哉 蓋夫秋之爲狀也 其色慘淡 烟霏雲斂 其容清明 天高日晶 其氣凜冽 砭人肌骨 其意蕭條 山川寂寥 故其爲聲也 淒淒切切 呼號憤發 豐草綠縟而爭茂 佳木蔥蘢而可悅 草拂之而色變 木遭之而葉脫 其所以摧敗零落 乃其一氣之餘烈 夫秋 刑官也 於時爲陰 又兵象也 於行爲金 是謂天地之義氣 常以肅殺而爲心 天之於物 春生秋實 故其在樂也 商聲 主西方之音 夷則 爲七月之律 商 傷也 物既老而悲傷 夷 戮也 物過盛而當殺 嗟乎 草木無情 有時飄零 人爲動物 惟物之靈 百憂感其心 萬事勞其形 有動于中 必搖其精 而況思其力之所不及 憂其智之所不能 宜其渥然丹者爲稿木 黧然黑者爲星星 奈何非金石之質 欲與草木而爭榮 念誰爲之戕賊 亦何恨乎秋聲 童子莫對 垂頭而睡 但聞四壁 蟲聲唧唧 如助余之嘆息

이상은 歐陽修의 「秋聲賦」 전체 전문 중 『팔가수권』 절록 부분을 음영 표시한

43) 김민현, 「조선시대 陸宣公奏議의 受容과 刊行에 대한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것이다. 전문은 저자 구양수가 수상한 소리를 들으며 시작되고 이를 상세하게 묘사하며 童子에게 어떤 소리인지 사방을 살펴보라는 대화가 이어진다. 이에 대해 동자의 대답이 직접 인용된 후 구양수가 ‘가을의 소리’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이 길게 이어지는데, 이를 듣다 졸아 버린 동자의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이 해당 작품의 생생함을 돋보이게 한다.

한편, 정조의 절록을 살펴보면 구양수와 동자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며 쓴 ‘曰’과 그 대화의 주체를 모두 생략하여 중간의 ‘사방에 사람의 소리는 없고 나무 사이에서 소리가 납니다.(四無人聲聲在樹間)’라는 동자의 대답을 직접 인용한 구절에 대해 그 發話 주체를 파악할 수 없어 전후의 문장과 동일하게 읽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가을의 소리로다.(此秋聲也)’로 이 작품의 주요한 주제가 시작되는 부분을 절록한 뒤 이어지는 가을의 모습과 性質, 그리고 이러한 가을의 성질이 官職과 五行에 적용된 경우에 대해 서술한 부분은 대부분 생략하고서 다시 ‘商聲은 西方의音を 주관하며 夷則은 7月の 律이 된다.(商聲主西方之音夷則爲七月之律)’라는 가을의 성질이 五聲에 적용된 문장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절록 방식은 ‘초록’이라는 문학 행위가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을 축약하여 짧은 구절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그 본질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장 학습서로서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기에는 다소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즉, 절록된 부분만 읽는 경우, 문장 간의 연결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특성이 제거되어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다소 혼란을 주는 편이다. 이와 같이 독자에게 다소 불친절한 절록 양상은 『팔가수권』내에서 인용한 예시와 같이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묘사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 종종 확인할 수 있다.⁴⁵⁾ 앞서 제시한 『육주약선』의 경우, 그 절록 대상의 문체가 ‘주의문’이었기에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앞뒤를 합치는 절록 방식을 통해서도 매끄러운 연결이 비교적

44) 선행연구의 정조가 학습 표본을 『팔가수권』으로 초록하여 문장의 규범화를 꾀하였지만 초록 자체가 지닌 한계에 의해 많은 학습의 요소를 놓치고 있어서 전면적인 문장 교과서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견해가 이와 같은 면모를 두고 도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오수형, 「『八家手圈』에 나타난 正祖의 柳宗元 산문 수용 양상」, 『중국어문학회』 49, 중국어문학회, 2014 참조.

45) 『팔가수권』 중 한유의 「送溫處士赴河陽軍序」, 「藍田縣丞廳壁記」, 「進學解」, 「張中丞傳後敘」를 대상으로 절록한 부분이 그 예시이다.

수월하게 이루어져 초본으로서 최대의 효율을 내는 동시에 해당 문체를 익히기 위한 학습서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편, 『팔가수권』의 경우 문체가 다양하고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권점과 비점을 쳐 구절을 재선별한 뒤 교정하는 편찬 과정이 60여 일 동안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어 그 결과가 미진한 양상이 없지 않다. 문장 학습서라는 목적이 뚜렷했기에 긴 시간 동안 수정을 거듭하여 완성했던 『팔자백선』을 포함한 이전의 선본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팔가수권』절록 방식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排比句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문인별로 분석하여 규명하였는데, 길고 화려한 배비구를 선호하는 절록 방식이 한유문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 정조가 한유의 碑誌文으로부터 작법의 다양성과 4言句의 銘辭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⁴⁶⁾ 등이 그것이다. 이는 한유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문인들의 작품, 특히 祭文, 墓誌, 墓誌銘, 碑銘, 碑 등 墓道文에서 공통적으로 대다수 나타나고 있다. 다만 『팔가수권』에 수록된 묘도문 중 한유의 작품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선행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하는 蘇軾의 「表忠觀碑」 전문 중 『팔가수권』 절록 부분을 음영표시한 것이다.

<表忠觀碑>

熙寧十年十月戊子 資政殿太學士右諫議大夫知杭州軍州事臣抃 言 故吳越國王錢氏墳墓 及其父祖妃夫人子孫之墳 在錢塘者 二十有六 在臨安者 十有一 皆蕪廢不治 父老過之 有流涕者

謹按故武肅王鏐 始以鄉兵 破走黃巢 名聞江淮 復以八都兵 討劉漢宏 并越州 以奉董昌而自居於杭 及昌以越叛 則誅昌而并越 盡有浙東西之地 傳其子文穆王元瓘 至其孫忠顯王仁佐 遂破李景兵 取福州 而仁佐之弟忠懿王俶 又大出兵攻景 以迎周世宗之師 其後 卒以國入覲 三世四王 與五代 相終始 天下大亂 豪傑蜂起 方是時 以數州之地 盜名字者 不可勝數 既覆其族 延及于無辜之民 罔有子遺 而吳越 地方千里 帶甲十萬 鑄山煮海 象犀珠玉之富 甲於天下 然 終不失臣節 貢獻 相望於道 是以 其民 至於老死 不識兵革 四時嬉遊 歌鼓之聲 相聞 至于今不廢 其有德於斯民 甚厚 皇宋受命 四方僭亂 以次削平 而蜀江南 負其嶮遠 兵至城下 力屈勢窮然後 束手 而河東劉氏 百戰守死 以抗王師 積骸爲城 醢血爲池 竭天下之力 僅乃克之 獨吳越 不待告命 封府庫籍郡縣 請吏于朝 眎去其國 如去傳舍 其有功於朝廷 甚大 昔 竇融 以河西歸漢 光武詔

46) 오수형, 「正祖의 韓愈文 수용 양상」, 『중국문학』 70, 한국중국어언문학회, 2012 참조.

右扶風 修理其父祖墳塋 祠以太牢 今錢氏功德 殆過於融 而未及百年 墳墓不治 行道嗟傷 甚非所以勸獎忠臣慰答民心之義也 臣 願以龍山廢佛寺曰妙因院者 爲觀 使錢氏之孫爲道士曰自然者 居之 凡墳墓之在錢塘者 以付自然 其在臨安者 以付其縣之淨土寺僧曰道微 歲各度其徒一人 使世掌之 籍其地之所入 以時修其祠宇 封殖其草木 有不治者 縣令丞 察之 甚者 易其人 庶幾永終不墜 以稱朝廷待錢氏之意 臣抃 昧死以聞 制曰可 其妙因院 改賜名曰表忠觀

銘曰

天目之山 苕水出焉 龍飛鳳舞 萃于臨安
篤生異人 絕類離群 奮挺大呼 從者如雲
仰天誓江 月星晦蒙 强弩射潮 江海爲東
殺宏誅昌 奄有吳越 金券玉册 虎符龍節
大城其居 包絡山川 左江右湖 控引島蠻
歲時歸休 以燕父老 曄如神人 玉帶毬馬
四十一年 寅畏小心 厥筐相望 大貝南金
五朝昏亂 罔堪託國 三王相承 以待有德
旣獲所歸 弗謀弗咨 先王之志 我維行之
天祚忠孝 世有爵邑 允文允武 子孫千億
帝謂守臣 治其祠墳 毋俾樵牧 愧我後昆
龍山之陽 巋焉新宮 匪私于錢 惟以勸忠
非忠無君 非孝無親 凡百有位 視此刻文

이상의 예시를 살펴보면, 본문 내용은 절록하지 않고 가장 마지막에 찬술되어 있는
碑銘詩만을 절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作詩, 辭, 銘의 글자는 한
글자도 생략하지 않고 모두 짝수로 對句를 맞추어 절록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銘
전체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절록한 경우도 종종 보인다.⁴⁷⁾
이는 대구와 押韻 등 소리 내어 읽을 때 일정한 운율이 있는 시의 고유 특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특정 구절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온전하
게 외우기 위한 『팔가수권』의 편찬 목적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정조는 소리 내어

47) 『팔가수권』중 한유의 「平淮西碑」, 「柳州羅池廟碑」, 「給事中(清河)張(君)徹墓誌銘」, 「(南陽)樊紹述墓誌銘」, 소순의 「張益州畫像記」, 그리고 소식의 「(潮州)韓文公廟碑」를 대상으로 절록한 부분이 그 예시이다.

읽고 외우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실제로 기록 상 정조가 책을 읽는 행위를 언급한 부분을 검토해보면 ‘讀’이나 ‘誦’이외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通讀’,⁴⁸⁾ ‘誦讀’,⁴⁹⁾ ‘諷誦’,⁵⁰⁾ ‘默誦’⁵¹⁾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풍송’은 ‘소리 내어 읊조리다’라는 뜻으로, ‘나는 이 한 단락을 좋아하여 평소에 항상 되새기며 외우곤 한다.’⁵²⁾고 하며 정조 본인의 마음에 드는 구절을 소리 내어 암송한다는 맥락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⁵³⁾ 즉, 대구를 맞추어 절록한 배비구는 소리 내어 외우는 ‘풍송’을 목적으로 한 『팔가수권』에 최적화되어 있기에 다수 수록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통독’ 혹은 ‘완독’을 목표로 편찬된 이전 선본들과는 다른 면모라고 할 수 있다.⁵⁴⁾

2. 茅坤의 『唐宋八大家文鈔』 圈點과의 비교

『팔가수권』이 당송팔대가의 작품에 비점과 권점을 치는 작업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그 수록 구절을 『팔가수권』의 저본에 해당되는 모곤의 『당송

48) 주로 한 질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경우에 쓰였다. 『弘齋全書』 卷164, 日得錄 四 文學, “予於機務之暇, 不輟三餘之工, 毋論經史, 每冬必了得一帙書, 歲以爲常.”

49) 대부분 반복하여 익숙하게 읽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쓰였다. 『弘齋全書』 卷164, 日得錄 四 文學, “先朝聖學, 專資於此書, 大耋之齡, 猶不輟誦讀. 予在春邸時, 仰承聖訓, 輪回講習, 不啻累十回.”

50) 주로 글자 수를 맞추어 운율이 있는 문장을 소리 내어 읊조리며 외우는 경우에 쓰였다. 『弘齋全書』 卷162, 日得錄 二 文學, “晁迴深於性理, 其七審之說, 皆以一切起語, 足可警發, 予未始不諷誦.”

51) 빈번하게 쓰인 단어는 아니지만 소리 내지 않고 읽는 경우에 쓰였다. 『弘齋全書』 卷162, 日得錄 二 文學, “冬曉睡覺, 在枕上默誦, 則尤是深趣.”

52) 『弘齋全書』 卷164, 日得錄 四 文學, “龜山過黃亭詹季魯家, 季魯問易, 龜山取一張紙, 畫箇圈子, 用墨塗其半云這便是易. 此一段, 予雅好之, 常常諷誦. 盈天地者, 只是兩箇陰陽字, 康節所謂古今十二萬九千六百年, 只是這圈子者, 亦類是也.”

53) 『弘齋全書』 卷164, 日得錄 四 文學, “箴銘頌, 多先賢格言, 最合諷誦. 予欲輯古今四字各體, 爲一部書, 俾作胄筵課誦之資.”

54) 『弘齋全書』 卷7, 詩 三 春秋完讀日, 慈宮設饌識喜, 唸示諸臣. 并小序, “乙卯, 新印朱書百選, 而十月二十八日始讀, 再翼月十有六日完讀, 凡四十有九日. 丙辰, 新印五經百篇, 十一月十一日始讀, 翼月初八日完讀, 凡二十有八日. 丁巳, 新印史記英選, 十月初八日始讀, 再翼月二十七日完讀, 凡八十日. 戊午, 新印八子百選, 十一月初吉始讀, 翼月十五日完讀, 凡四十有五日.”

팔대가문초』에 나타난 권점 및 비점과 비교하는 연구 방법을 통해 정조가 『팔가수권』을 편찬할 때의 절록 기준과 목적, 그리고 그의 문학과 파악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모곤은 『당송팔대가문초』에서 평점의 종류와 사용처, 사용한 의미에 대해 범례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⁵⁵⁾ 모곤의 권점과 정조의 권점이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절록한 것인지 추측이 가능하다. 혹은 『당송팔대가문초』에 나타난 권점은 궁극적으로 초학자의 문장 학습을 돕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권점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도 정조의 『팔가수권』 편찬 목적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당송팔대가문초』에 비점이나 권점이 더해져 있는 부분이 『팔가수권』에서 절록된 부분보다 절대적인 양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곤은 문장 중에서의 의리가 담겨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표현법이나 수사적 기법이 뛰어난 부분, 문장의 전반적인 구조 상 호응되는 부분 등을 모두 표시하였기 때문에 한 작품 내에서 권점이나 비점이 더해져있는 구절이 과반수이다. 다만, 권점 및 비점이 쳐진 구절들이 길게 이어지기 보다는 짧게 작품 내 여러 곳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아래는 韓愈의 「論佛骨表」 전문 중 『팔가수권』 절록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하고, 모곤의 권점 및 비점 부분은 밑줄로 표시한 것이다.

<論佛骨表>

臣某言 伏以佛者 夷狄之一法耳 自後漢時流入中國 上古未嘗有也 昔者 黃帝在位百年

55) 범례의 설명에 근거하여 권점 부호를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검은 긴 줄, 흰 긴 줄 (長抹): 문장의 중요한 부분과 본말, 대의를 표시하며 문장 앞의 비평과 문장 말의 총평 등과 서로 호응하여 사용한다. 또한 주요한 사안을 시작하거나 결론짓는 곳을 표시해준다.
- ② 검은 짧은 줄 (短抹): 문장에서 중요한 인명, 국명, 황제의 호, 관직을 표시하거나 주의해야 할字眼 등을 보여준다.
- ③ 동그란 권점 (圓圈): 문장에서 가장 훌륭하고 잘 표현된 부분 (상급)
- ④ 뾰족한 권점 (尖圈): 그 다음으로 아름다운 부분 (중급)
- ⑤ 방점(旁點): 그 다음으로 표현이 괜찮은 부분 (하급)
- ⑥ 주위를 둘러싼 권점 (圍圈): 주요한 자안을 표시해주고 독자가 주의하도록 한다.
- ⑦ 자르는 표시: 문단이 일단락되는 부분

당윤희, 「모곤(茅坤)의 당송(唐宋) 고문(古文) 평점(評點) 비평에 대한 고찰-《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抄)》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86, 한국중국어문학회, 2016 참조.

年百一十歲 少昊在位八十年 年百歲 顓頊在位七十九年 年九十八歲 帝嚳在位七十年 年百五歲 帝堯在位九十八年 年百一十八歲 帝舜及禹年皆百歲 此時天下太平 百姓安樂壽考 然而中國未有佛也 其後殷湯亦年百歲 湯孫太戊在位七十五年 武丁在位五十九年 書史不言其年壽所極 推其年數 蓋亦俱不減百歲 周文王年九十七歲 武王年九十三歲 穆王在位百年 此時佛法亦未入中國 非因事佛而致然也 漢明帝時 始有佛法 明帝在位纔十八年耳 其後亂亡相繼 運祚不長 宋齊梁陳元魏以下 事佛漸謹 年代尤促 惟梁武帝在位四十八年 前後三度捨身施佛 宗廟之祭 不用牲牢 晝日一食 止於菜果 其後竟爲侯景所逼 餓死臺城 國亦尋滅 事佛求福 乃更得禍 由此觀之 佛不足事 亦可知矣 高祖始受隋禪 則譴除之 當時群臣材識不遠 不能深知先王之道 古今之宜 推闡聖明 以救斯弊 其事遂止 臣常恨焉 伏惟睿聖文武皇帝陛下 神聖英武 數千百年已來未有倫比 卽位之初 卽不許度人爲僧尼道士 又不許創立寺觀 臣常以爲高祖之志가 必行於陛下之手 今縱未能卽行 豈可恣之轉令盛也 今聞陛下令群僧迎佛骨於鳳翔 御樓以觀 昇入大內 又令諸寺遞迎供養 臣雖至愚나 必知陛下不惑於佛 作此崇奉 以祈福祥也 直以年豐人樂 徇人之心 爲京都士庶設詭異之觀 戲玩之具耳 安有聖明若此而肯信此等事哉 然百姓愚冥 易惑難曉 苟見陛下如此 將謂眞心事佛 皆云天子大聖 猶一心敬信 百姓何人 豈合更惜身命 焚頂燒指 百十爲群 解衣散錢 自朝至暮 轉相倣效 惟恐後時 老少奔波 棄其業次 若不卽加禁遏 更歷諸寺 必有斷臂禿身以爲供養者 傷風敗俗 傳笑四方 非細事也 夫佛 本夷狄之人 與中國言語不通 衣服殊製 口不言先王之法言 身不服先王之法服 不知君臣之義 父子之情 假如其身至今尙在 奉其國命來朝京師 陛下容而接之 不過宣政一見 禮賓一設 賜衣一襲 衛而出之於境 不令惑衆也 況其身死已久 枯朽之骨 凶穢之餘 豈宜令人宮禁 孔子曰 敬鬼神而遠之 古之諸侯行弔於其國 尙令巫祝先以桃茢祓除不祥然後進弔 今無故取朽穢之物 親臨觀之 巫祝不先 桃茢不用 群臣不言其非 御史不舉其失 臣實恥之 乞以此骨付之有司 投諸水火 永絕根本 斷天下之疑 絕後代之惑 使天下之人知大聖人之所作爲 出於尋常萬萬也 豈不盛哉 豈不快哉 佛如有靈 能作禍祟 凡有殃咎 宜加臣身 上天鑑臨 臣不怨悔 無任感激懇悃之至 謹奉表以聞

이상의 예시를 살펴보면, 정조의 절록 부분은 전문 중 4분의 1가량으로 적지만, 모곤의 권점과 비점이 표시된 부분은 전문 중 3분의 1가량으로 절대적인 양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작품에서 두 사람이 모두 훌륭하다고 평가한 부분을 살펴보면 佛가가 없어 태평했던 시대의 성왕들이 장수했다는 내용인데, 이 때 정조는 黃帝, 少昊, 顓頊, 帝嚳, 帝堯와 禹, 湯王, 太戊, 武丁, 文王, 武王, 그리고 穆王에 이르기까지 역대 성왕들의 수명과 재위기간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근거로 삼은 부분

을 모두 포함하여 길게 절록하고 있다. 반면, 모곤의 권점은 번다한 고사 부분은 제외하고 해당 구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장 부분만 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논불골표」의 논리 전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정조는 한유가 「논불골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大義나 道를 잘 담아낸 문장이 어느 부분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절록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뜻과는 동떨어져 다소 지엽적인 문장이라 할지라도 외워두었을 때 효용가치가 높은 문장을 가려내어 절록하였다는 점을 이상의 예시와 같은 비교를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유추할 수 있다.

정조의 절록 구절과 모곤의 권점 및 비점 구절이 거의 겹치지 않는 작품이 다수 확인된 사실도 『팔가수권』의 편찬이 독자를 의식한 문장 교육보다는 개인적인 암송 공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팔가수권』 수록 작품 총 475수 중 96수의 작품이 정조의 개인 기호가 반영되어 모곤의 권점 및 비점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절록되어 있는데, 이는 비율로 계산하였을 때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⁵⁶⁾ 모곤의 권점 및 비점과 중첩되지 않는 『팔가수권』 절록 구절을 통해 규명할 수 있는 정조의 기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성왕들의 업적 및 역사적 사실이 담긴 고사 등이 묘사된 구절을 선호하였다. 아래의 예시문은 소식의 「刑賞忠厚之至」 중 『팔가수권』 절록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하고, 모곤의 권점 및 비점 부분은 밑줄로 표시한 것이다.

<刑賞忠厚之至>

堯舜禹湯文武成康之際 何其愛民之深 憂民之切 而待天下以君子長者之道也 有一善 從而賞之 又從而詠歌嗟歎之 所以樂其始而勉其終 有一不善 從而罰之 又從而哀矜懲創之 所以棄其舊而開其新 故其吁咻之聲 歡休慘戚 見于虞夏商周之書 成康既沒 穆王立에 而周道始衰 然猶命其臣呂侯 而告之以祥刑 其言 憂而不傷 威而不怒 慈愛而能斷 惻然有哀憐無辜之心 故孔子猶有取焉 傳曰 賞疑從與는 所以廣恩也 罰疑從去 所以慎刑也 當堯之時 皐陶爲士 將殺人 皐陶曰 殺之 三 堯曰 宥之를 三 故天下畏皐陶

56) 당송팔대가 문인별로 정리해보면, 『팔가수권』에 수록된 구양수의 작품은 총 82수로, 그 중 40.2%에 해당되는 33수의 작품이 모곤의 권점 및 비점과 전혀 겹치지 않고 있어 8명의 문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소철의 경우 『팔가수권』 수록 18수의 작품 중 7수가 전혀 겹치지 않아 38.8%의 수치로 비금가며, 24%의 수치로 증공, 23.3%로 왕안석이 뒤를 이었다. 이외 소식이 13.1%, 유종원이 12.8%, 소순이 12.5%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한유가 11.1%로 가장 낮다.

執法之堅 而樂堯用刑之寬 四岳曰 鯀可用 堯曰 不可 鯀 方命圯族 既而 曰 試之 何堯之不聽皋陶之殺人 而從四岳之用鯀也 然則聖人之意 蓋亦可見矣 …… (下略)

이상의 인용문 중에서 모곤은 여러 성왕들의 賞罰 집행이라는 작품 전체의 논제를 관통하는 두 구절을 선택한 반면, 정조는 皋陶가 죄인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세 번 아뢰었으나, 堯임금은 세 번 “용서하라.”고 대답하였던 구체적인 장면이 담긴 구절을 선택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구절은 정조가 평소 行刑 관련 업무 시 여러 차례 언급한⁵⁷⁾ 구절로, 암송하여 체득하는 공부를 실현하며 익숙하게 직접 인용하였던 구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순의 『議法』에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정조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다.

<議法>

古者 以仁義 行法律 後世 以法律 行仁義 三代之聖王 其教化之本 出於學校 蔓延於天下 而形見於禮樂 下之民 被其風化 循循翼翼 務爲仁義 以求避法律之所禁 故其法律 雖不用 而其所禁 亦不爲不行於其間 至於漢唐 其教化 不足以動民 而一於法律 故其民 懼法律之及其身 亦或相勉爲仁義

이상의 예시문은 소순의 『議法』중 정조의 절록 부분만을 인용한 것이다. 三代 聖王이 법률을 행한 근본과 그 영향, 이와 전혀 다르게 변모한 漢·唐 시기의 법률 시행에 대해 묘사한 문장으로, 작품의 첫 부분에 해당된다. 특별히 화려하고 뛰어난 표현이 구사된 문장이 아니라 여느 경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만한 보편적 사실을 비교적 평이하게 서술한 문장이지만, 정조는 이 작품 내에서 해당 구절만을 절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록 양상은 역대 성왕들의 고사, 특히 夏·殷·周 시대에 대한 서술을 선호한 정조의 기호를 잘 보여준다. 유가에서 성현으로 제시하는 인물, 특히 하·은·주 시대 성왕들의 행적을 선호하는 경향은 이전의 정조 친찬서에서도 나타나는 특징

57) 『日省錄』 正祖 21年(1797) 5月 18日, “敎以皋陶曰殺之, 三帝曰宥之, 三桓作茶飯語, 其實未有概見於經傳直. 是後人以皋陶執法, 帝堯好生, 設意而立言者, 苟其必可有, 皋陶亦當日宥, 苟其必可殺, 帝堯亦當日殺, 豈有皋陶常主於殺, 帝堯常主於宥之理也哉. 於此竊嘗以爲不以辭害意可也.” 그 외로 『日省錄』 正祖 21年(1797) 6月 4日 기사, 『日省錄』 正祖 22年(1798) 5月 22日 기사, 『日省錄』 正祖 22年(1798) 11月 19日 기사에서 언급하였으며 『羣書標記』 수록 『審理錄』 해제에서도 인용하고 있다.

중 하나인데, 정조 친찬 선본 중 하나인 『오경백편』의 권 3 「詩」에서 두드러진다.⁵⁸⁾ 이는 성왕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한 정조의 지향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治世에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을 선호하였다. 아래의 예시문은 소식의 「無沮善」과 「上清儲祥宮碑」중 모곤은 권점을 치지 않았지만 정조는 절록하여 『팔가수권』에 수록한 부분만을 인용한 것이다.

<無沮善>

設爲高位重祿 以待能者 使天下 皆得踴躍自奮 扳援而來 惟其才之不逮 力之不足 是以 終不能至於其間 而非聖人塞其門絕其途也 夫然故 一介之賤吏 閭閻之匹夫 莫不奔走於善 至於老死而不知休息

<上清儲祥宮碑>

民不可勞也 兵不可役也 大司徒錢 不可發也 而先帝之意 不可以不成

성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고관대작으로부터 필부에 이르기까지 천하사람 모두를 스스로 분발하여 진취적으로 따르게끔 다스렸는지에 대한 내용과 백성들과 병사들을 부역시키는 일이나 재정을 관리하는 일보다 先帝의 뜻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주목해야할 점은 해당 내용의 주체가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최고 위정자라는 것이다. 정조 자신이 곁에 두고 여러 차례 읽어보아야 할 문헌이기에 임금이 치세에 참고해야할 구절들을 절록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올바른 문체의 전범을 규정하고 이를 문인들에게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선본에서는 동일하게 치세에 대한 주제라 할지라도 선본의 독자가 될 문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했던 것⁵⁹⁾과는 분명히 다른 면모이다. 아래의 예시문은 임금이 주체가 되는 치세 관련 내용들을 선호하였다는 사실을 더욱

58) 윤현정, 「『五經百篇』 수록 『詩經』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5, 한국서지학회, 2016.

59) 정조 친찬 선본에서는 직접적으로 임금의 잘못을 타하는 내용 등 성리학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내용이 선별되지 않고, 사대부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흔히 인용되는 고사의 원전이 되는 내용, 당시 문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선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윤현정, 「朝鮮朝 正祖 御撰 選本の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9 참조.

명확하게 보여준다.

<與孫司封書>

爲天下者 使萬事已理 天下已安 猶須力開言者之路 以防未至之患 況天下之事 其可憂者甚衆 而當世之患 莫大於人不能言與不肯言 而甚者或不敢言也

이상의 예시문은 증공의 「與孫司封書」중 『팔가수권』수록 부분만을 인용한 것이다. 첫 부분에 문장의 주체가 ‘爲天下者’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이외의 문인들을 독자로 설정하고 편찬하였다면, 임금의 국정을 돌보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보다는 신하로서 위로 임금을 보좌하고 아래로 백성들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절록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정조가 제왕으로서 군주의 권위와 위상을 표명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군신 관계 및 그 역할에 대한 의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고 해석하였는데⁶⁰⁾, 이는 문인들을 독자로 설정하여 편찬한 선본에 해당되며 정조 본인이 읽고자 편찬한 초본인 『팔가수권』에 적용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반대로 정조의 절록 구절과 모곤의 권점 및 비점 구절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도 확인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구절은 대부분 비유법이 뛰어나거나 수사적 표현이 훌륭하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가진다.

<祭歐陽文忠公文>

嗚乎哀哉 公之生於世 六十有六年 民有父母 國有蓍龜 斯文有傳 學者有師 君子有所恃而不恐 小人有所畏而不爲 譬如大川喬嶽 不見其運動 而功利之及於物者 蓋不可以數計而周知 今公之沒也 赤子無所仰芘 朝廷無所稽疑 斯文化爲異端 而學者至於用夷 君子以爲無(爲)[與]爲善 而小人沛然自以爲得時 譬如深(淵)[山]大澤 龍亡而虎逝 則變怪(雜)[百]出 舞魑鰥而號狐狸 昔其未用也 天下以爲病 而其既用也 則又以爲遲 及其釋位而去也 莫不冀其復用 至於請老而歸也 莫不惆悵失望 而猶庶幾於萬一者 幸公之未衰 孰謂公無復有意於斯世也 奄一去而莫予追 豈厭世溷濁 潔身而逝乎 將民之無祿

60) 오수형, 「正祖의 韓愈文 수용 양상」, 『중국문학』 70, 한국중국어문학회, 2012.

_____, 「正祖의 古文 指向과 御定 《八子百選》(八家手圈)에 나타난 正祖의 柳宗元 산문 수용 양상」, 『중국어문학회지』 49, 한국중국어문학회, 2014.

而天莫之遺 昔我先君 懷寶遁世 非公則莫能致 而不肖無狀 因緣出入 受教於門下者
十有六年於茲 聞公之喪 義當匍匐往救 而懷祿不去 愧古人以忸怩 緘詞千里 以寓一哀
而已矣 蓋上以爲天下慟 而下以哭其私 嗚呼哀哉 尙享

이상의 예시는 소식의 「祭歐陽文忠公文」 전문 중 『팔가수권』 절록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하고, 모곤의 권점 및 비점 부분은 밑줄로 표시한 것이다. 정조와 모곤 두 사람 모두 구양수가 살아 있을 때와 별세 후의 세상이 어떠한 지에 대해 비유법을 통해 표현한 구절을 이 작품의 뛰어난 부분으로 꼽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정조의 소식 문장 수용 양상에 대해 비교적 심미적 경향이 농후한 소식 문장의 특성을 적극 수용하여 비유의 적절성과 창신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주장⁶¹⁾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정조가 비유법을 선호하여 『팔가수권』에 다수 절록한 사실은 소식뿐만 아니라 당송팔대가 모두에 해당된다. 아래의 예시문은 구양수의 「送楊眞序」 전문을 같은 방법으로 인용한 것이다.

<送楊眞序>

此文 當肩視昌黎而直上之 予嘗有幽憂之疾 退而閑居 不能治也 既而學琴於友人孫道
滋 受宮聲數引 久而樂之 不知疾之在其體也 夫琴之爲技 小矣 及其至也 大者爲宮 細
者爲羽 操絃驟作 忽然變之 急者淒然以促 緩者舒然以和 如崩崖裂石 高山出泉 而風
雨夜至也 如怨夫寡婦之歎息 雌雄雍雍之相鳴也 其憂深思遠 則舜與文王孔子之遺音也
悲愁感憤 則伯奇孤子屈原忠臣之所歎也 喜怒哀樂 動人必深 而純古淡泊 與夫堯舜三
代之言語 孔子之文章 易之憂患 詩之怨刺 無以異 其能聽之以耳 應之以手 取其和者
道其湮鬱 寫其幽思 則感人之際 亦有至者焉 予友楊君 好學有文 累以進士舉不得志
及從蔭調 爲尉於劍浦 區區在東南數千里外 是其心固有不平者 且少又多疾 而南方少
醫藥 風俗飲食異宜 以多疾之體 有不平之心 居異宜之俗 其能鬱鬱以久乎 然欲平其心
以養其疾 於琴亦將有得焉 故予作琴說以贈其行 且邀道滋 酌酒進琴以爲別

역시 『팔가수권』과 『당송팔대가문초』 두 문헌 모두 거문고 연주에 대해 비유법과 수려한 수사법으로 표현한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정조가 『팔가수권』自序에서 “그 꽃과 열매를 씹어 보고 음미하며 점차 瓊琚나 韶濩처럼 아름다운 문장을 지을

61) 오수형, 「正祖의 蘇軾 散文 수용 양상 연구」, 『중국문학』 77, 한국중국어문학회, 2013.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바이다.”라고 한 언급에서 ‘꽃과 열매’가 곧 당송팔대가의 화려한 표현법의 정수만을 모아둔 『팔가수권』의 구절들을, ‘아름다운 문장’이 唯美主義와 형식에 집착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수식에 치중한 秦漢擬古文이나 八股文, 臺閣體와는 다르게 ‘文以載道’를 바탕으로 하여 지어진 당송팔대가의 문장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유추하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즉, 정조가 재위기간 중 거듭 표명했던 그의 문체론이 『팔가수권』에서도 일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팔가수권』에 실제 절록된 구절들을 검토하여 절록 방식 상의 특징을 정리하고, 『팔가수권』의 저본이 되는 『당송팔대가문초』의 권점 및 비점을 함께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육주약선』에서도 특징으로 꼽혔던 주어나 부사절, 접속사 등의 글자와 특정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절록 양상을 통해 정조가 학자로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편찬에 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排比句 선호 양상은 소리 내어 읽으면서 외우는 행위를 선호한 정조의 학습법과 연관을 지닌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모곤의 권점 및 비점과 비교한 결과, 성왕들의 업적 및 역사적 사실이 담긴 고사 등이 묘사된 구절과 治世에 도움이 될 만한 구절 등 정조 본인이 외워두었을 때 효용가치가 높은 문장을 특히 다수 절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당송팔대가 특유의 ‘문이재도’에 근거한 비유법과 수사법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정조의 『팔가수권』편찬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학관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암송 공부를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 근거로서 충분히 효용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팔가수권』은 교육용 선본이었던 『팔자백선』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는 없다는 명제를 주장하는 바이다.

Ⅶ. 결론

본고의 연구대상인 『팔가수권』은 모곤의 『당송팔대가문초』를 저본으로 하여 1797년 10월부터 약 60일간 정조가 직접 ‘批’, ‘圈’, ‘選’, ‘校’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절록된 약 470여개의 구절들을 문인별로 분류하여 엮은 정조 친찬 초본 중 하나이다. 이 문헌을 시작으로 정조는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그리고 주희의 글, 육선공의

주의문, 『의례』, 『주례』, 『예기』, 『사기』와 『한서』, 『후한서』를 대상으로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초본을 편찬하여 經·史·子·集의 분류로 구분하고 『사부수권』이라 명명하였다.

문헌 편찬은 몇몇 조선의 국왕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업적이지만, 취사여부와 절록양상으로부터 편찬자의 사상과 학문관, 문장관이 드러나는 선본과 초본을 직접 연달아 주제별로 편찬한 것은 정조에게서만 나타나는 매우 특수한 사례이다. 더욱이, 당송팔대가의 문장을 대상으로 한 선집은 한·중·일의 동아시아 세계에서 모두 유행하였지만, 일부를 절록하여 초본으로 편찬한 경우는 현존하는 문헌 중 『팔가수권』이 유일하다.⁶²⁾ 이와 같은 특수성에 주목하여 정조의 문헌 편찬을 일종의 문화 사업과 문체반정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이루어진 선행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선본’과 ‘초본’이라는 문헌 종류의 차이를 차치하고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사부수권』 전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성과가 다소 세밀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정조가 선본 시리즈를 편찬한 이후 같은 저본을 대상으로 재차 초본을 편찬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정조의 『팔가수권』 편찬 의도를 규명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 중 일부 내용에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조는 초록과 암송을 중시하는 학문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곧 선본과 초본 편찬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이때, 선본이 문인들의 문장공부를 위한 교육용 讀本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송팔대가문과 주자문, 『사기』, 육선공주의문, 오경, 두보와 육유의 시 등 각 주제별로 간행된 반면, 그보다 양이 적고 극히 요약된 초본은, 같은 주제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정조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구절을 완전히 외워 체득하는 암송공부를 위한 문헌이라는 차이점을 보인다.

둘째, 『팔가수권』은 ‘批’, ‘圈’, ‘選’, ‘校’ 네 단계의 편찬 과정을 거쳐 약 60일 동안 편찬되었으며, 직접 비점과 권점을 치고 선별하였으며 문인들과 논의하여 교감까지 마무리하였다. 그 편찬 과정 중에서 권점을 치는 행위자체를 朱子의 道統을 잇는 학자임을 의식하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여 강조하였고, 이 때문에 字法과 句法을 논하고 章法과 篇法을 분석하는 시문 비평 방식의 기능을 하는 일반적인 권점본과

62) 왕결청, 『『八家手圈』에 보이는 選本상의 특징과 韓愈文의 수용 양상』, 『열상고전연구』 53, 열상고전연구회, 2016.

달리, 해당 구절이 ‘왜’ 정수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뛰어난 자법, 구법 등에 대한 기록은 일체 생략되어 있어 교육용 문헌이라고 간주하기에 다소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팔가수권』의 구성에 있어서는, 문체와 문인, 작품명 등의 정보보다 초록된 구절을 강조하였고, 작품명의 경우 구절이 끝나는 부분에 세주쌍행으로 표기하되 인명이나 직위명, 지명 등에 해당하는 글자는 생략하였으며 목차도 따로 두지 않아 다소 불친절할 정도로 번잡함을 최대한 제거하였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총목과 권별 목차를 따로 두어 문체별로 분류한 뒤 작품명과 문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 『팔자백선』과 가장 상반되는 부분으로, 정조가 이 문헌을 편찬할 때에 독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인별 수록 편수와 문체별 수록 편수를 헤아려 비교해보았을 때, 『팔가수권』과 『팔자백선』은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며, 두 문헌의 수록 작품을 대조한 결과 『팔자백선』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팔가수권』에는 미수록된 작품이 9편 존재한다. 이는 『팔가수권』은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사상보다는 일부 훌륭한 구절이나 정조 본인이 암송하고자 하는 부분을 절록하였고, 『팔자백선』은 글 전체에 담긴 내용이 성리학적 가치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선별했기 때문이다.

넷째, 절록 양상을 검토하였을 때, 정조 특유의 과감한 절록 방식은 정조가 학자로서 자신의 학습법을 충실히 적용하였다는 사실과, 동시에 『팔가수권』이 『팔자백선』과는 달리 전면적인 학습서로서는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반면, 排比句 선호 양상은 소리 내어 읽으며 외우기에 적합하므로 『팔가수권』의 목적이 문장 교육용이 아닌 정조 자신의 암송용이라는 점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절록 내용에 있어서는 정조가 이상시대로 여겼던 시대 재위한 성왕들의 업적 및 역사적 사실이 담긴 고사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구절과 위정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이는 신하 입장의 문인들이 읽었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주로 선별한 『팔자백선』과 정반대로 임금인 정조 본인이 외워두었을 때 효용가치가 높은 구절로, 문헌 내적 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두 문헌의 편찬 목적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팔가수권』의 간행에 대해 다루지 않았지만, 『사부수권』은 1798년 11월 30일 필사본의 형태로 완성된 이후 간행 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반사 또한 편찬에 참여한 인물에 한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정조가 이 문헌을 간행하여 널리 유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본의 경우 6종의 문헌이 편찬될 때마다 즉시 차례로 간행되었고, 간행 후에는 곧바로 지방에 내려 보내어 번각하도록 명하였으며, 각 문헌의 편찬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장서 구성을 계획하여 널리 유포하는 동시에 생원, 유학, 진사 등 과거시험에 합격한 이들에게 다량 반사하여 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두 문헌은 모두 많은 양의 문헌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편찬되었고, 편찬자 정조 역시 서문과 기타 기록을 통해 그와 같이 언급하였지만,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문헌의 종류와 구성, 수록 작품, 선별된 내용, 간행 여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 편찬 의도가 달랐기 때문이며, 단순히 저본이 『당송팔대가문초』로 동일하다는 사실로 인해 두 문헌을 같은 선상에 두고 논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선행연구 중 『팔가수권』이 『팔자백선』을 저본으로 하여 편찬된 문헌이라고 오인될 수 있는 언급과 『팔가수권』 수록 편수를 권수의 「정사삼여과정도」에 근거하여 헤아린 사실 등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조의 선본과 초본을 규명하고 문헌 내적 분석을 통해 편찬 의도를 추측한 것에 있다. 이와 같은 서지학적 연구 방법이 정조의 사상과 행적을 이해하는 데에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본고는 『팔가수권』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해당 문헌이 포함된 『사부수권』전체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는 한계점을 지니며,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는 바이다.

참고문헌

- 『內閣日曆』
『承政院日記』
『日省錄』
『正祖實錄』
『增補文獻備考』
『群書標記』(영인), 學文閣, 1970
『奎章總目』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 B17B-0018
『四部手圈』(영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2
正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263집, 한국고전번역원, 2001
- 강혜선, 『정조의 시문집 편찬』. 문헌과 해석사, 2000
국어국문학회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7
김문식,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 해석사, 2000
박완식 편역, 『한문 문제의 이해』.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1
백승호, 『정조의 문치』. 휴머니스트, 2020
- 강혜선, 「정조의 문예진흥과 시문선집의 편찬」,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1999
_____, 「正祖의 詩文集 編纂樣相 연구」, 『장서각』 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강순애,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四部手圈』 편찬·교정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서지학연구』 78, 한국서지학회, 2019
김문식, 「正祖 御製集 弘齋全書의 書誌的 特徵」, 『장서각』 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당윤희, 「모곤(茅坤)의 당송(唐宋) 고문(古文) 평점(評點) 비평에 대한 고찰 -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抄)》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86, 한국중국어문학회, 2016
민선영, 「마음의 휴식을 위한 공부-『八子百選』과 『八家手圈』의 記를 중심으로」, 『한국산문연구집간』 3, 한국중국산문학회, 2013
신승운, 「弘齋全書와 群書標記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2, 한국서지학회, 2001
안대회, 「朝撫和時代 文章觀과 文章選集」, 『정신문화연구』 20,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오수형, 「正祖의 韓愈文 수용 양상」, 『중국문학』 70, 한국중국어문학회, 2012
_____, 「正祖의 蘇軾 散文 수용 양상 연구」, 『중국문학』 77, 한국중국어문학회, 2013

- _____, 「正祖의 古文 指向과 御定 《八子百選》《八家手圈》에 나타난 正祖의 柳宗元 산문 수용 양상」, 『중국어문학지』 49, 한국중국어문학회, 2014
- 윤현정, 「『八子百選』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研究」, 『大東文化研究』 9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6
- _____, 「朝鮮朝 正祖 御撰 選本の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9
- 왕결청, 「『八家手圈』에 보이는 選本上的 특징과 韓愈文의 수용 양상」, 『열상고전연구』 53, 열상고전연구회, 2016
- 이의강, 「正祖의 唐宋八家文 批評 小考-文體反正과 관련하여」, 『민족문화』 16, 한국고전번역원, 1993
- 조동영, 「正祖의 『四部手圈』 小考」,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10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do>)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e-kyujanggak.snu.ac.kr)
성균관대학교 존경각(<http://oldbook.skku.edu/>)
한국고전번역DB: 한국문집총간 (<http://db.itkc.or.kr>)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百度 (www.baidu.com)

A Brief Study on Compilation of the Palga-Sugwon

Yoon, Hyun-joung

Palga-sugwon is an abridgment book extracted from the Dangsong-paldaega-muncho: the Selected Works of Literary of Eight Masters in Tang and Ming Dynasty. King Jeongjo abstracted it by himself and categorized by writers. In this study, Palga-sugwon is compared with Palja-baekseon because it is not clear why King Jeongjo made them from the same origin in a similar way but in two different sets. As results of this study, it is discovered that the Palga-sugwon was compiled as a personal study tool for King Jeongjo himself to recit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result of previous research, based on four reasons as follow.

First, anthology and abridgment book have different functions especially if they were edited by King Jeongjo since he considered abstract and recitation as important ways of study. Anthology was made as a group of abstracts from the original book, but abridgment book was made for the recitation. Second, the King Jeongjo treated a performance of circle on a good text as a way of respect to Zhu Xi, and he deleted all of critic commentaries. Third, it is hard to find information of writer, title, writing style because they are written by small sized text on the Palga-sugwon. Also, there is no table of contents although a great volume. The construction of this book shows King Jeongjo did not consider other people as readers. Last, it turns out that there is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Jeongjo's abridgment by contrasting between chosen writings pieces of the Palga-sugwon and the criticism of commentaries from the Dangsong-paldaega-muncho. He chose the instructive ones which might be helpful for king, not for students.

For these reasons, it is a necessary to reconsider the argument which said the Palga-sugwon and the Palja-baekseon have the same function and purpose just because they both were extracted from the Dangsong-paldaega-muncho. This research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because it points out the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Palga-sugwon and the Palja-baekseon by comparing them as anthology and abridgment book.

Key Words : Palga-Sugwon, king Jungjo, Sabusugwon, abridgment, king-edited book,
Eight Masters in Tang and Ming Dynasty